

이슈 브리핑

❶ 이슈 요약

- ◆ Volkswagen, 중국 Carizon을 통해 5년 내 출시 목표로 L3 자율주행용 시스템온칩(SoC) 개발 추진
- ◆ 중국 상무부, 중국 내에서 생산된 Nexperia 민수용 칩 일부를 수출통제 대상에서 제외
- ◆ 중국, '25.10월 신차 332.2만 대 중 신에너지차(NEV)가 171.5만 대로 NEV 점유율 50% 상회
- ◆ Ford, 전기차 수요 부진·부품업체 화재가 맞물리며 F-150 Lightning 전기 픽업트럭 단종 위기에 직면
- ◆ Subaru, '30년까지의 1.5조 엔 전동화 투자를 재검토하고, ICE/HEV 모델과 비용 절감 중심으로 자원 재배분 추진
- ◆ Toyota, 향후 5년간 미국 공장에 최대 10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하고 현지 생산체계 강화 예정

◆ Volkswagen, 중국에서 L3 자율주행용 SoC 자체 개발 추진

- Volkswagen은 SW 부문 자회사 Cariad와 중국 지능형 주행 솔루션 업체 Horizon Robotics의 조인트 벤처인 Carizon을 통해 자율주행용 시스템온칩(SoC)을 자체 설계·개발할 계획
 - 해당 SoC는 향후 3~5년 내 출시를 목표로 하고, 약 500~700 TOPS*의 단일 칩 컴퓨팅 성능을 바탕으로 L3 이상의 자율주행을 지원한다는 계획
- * 연산 능력을 측정하는 단위로 Tesla HW4가 300~500 TOPS 수준으로 알려짐
- 이번 계획은 Volkswagen의 “In China, for China” 전략의 일환으로, 당사는 중국의 복잡한 도로·도심 주행 환경을 고려해 SoC를 설계하고 성능·효율성을 바탕으로 중국 내 자율주행 경쟁에 대응할 것임을 언급

Cariad('25.11.5.) <https://bit.ly/4oKzZ71>

Digitimes Asia('25.11.7.) <https://bit.ly/4olesM4>

◆ 중국 상무부, Nexperia 칩 일부에 대해 수출 재개 허용

- '25.11.9. 중국 상무부는 중국 내에서 생산된 민수용(civilian use) Nexperia 칩 일부를 수출통제 대상에서 면제한다고 밝힘
- 지난 9월 네덜란드 정부가 안보·기술상의 우려로 Nexperia 모회사인 中 Wingtech의 경영권을 제한하자 중국 정부는 Nexperia 칩 수출 통제로 대응하였으나, 10월 미·중 무역 협상 이후 갈등이 완화된 양상
- 다만 이번 수출통제 면제는 민수용 제품 일부에 국한되며, Nexperia의 경영권 분쟁이 완전 해결되기 전까지는 중국-네덜란드 혹은 중국-EU 간 긴장 구도가 계속될 것이라는 평가도 존재

BBC('25.11.10.) <https://bit.ly/4oC8Rag>

Reuters('25.11.10.) <https://bit.ly/4nOtajt>

◆ 중국 '25.10월 신차 중 신에너지차(NEV) 점유율 50% 상회

- 중국자동차공업협회(CAAM)에 따르면 '25.10월 중국 신차(수출 포함) 판매량은 332.2만 대(YoY +8.8%)이며, 그 중 NEV 판매량*이 171.5만 대(YoY +20%)로 전체 신차의 51.6%를 점유
- 이는 10월 중국 신차 판매량 감소(전년동월比 -0.8%) 및 NEV 구매세 면제 혜택 축소 예고에 따른 NEV 선구매 수요 증가세가 맞물린 결과

CnEVPost('25.11.11.) <https://bit.ly/3JZatf7>

Reuters('25.11.10.) <https://bit.ly/4o0WqUl>

◆ Ford, 전기 픽업트럭 F-150 Lightning 단종 위기에 직면

- '23년 이후 전기차 사업에서 약 130억 달러의 손실이 누적된 Ford는 픽업트럭 F-150 Lightning의 단종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
- '25.10월 Ford의 미국 전기차 판매가 전년비 24.8% 감소한 가운데, F-150 Lightning은 판매량(1,543대)이 내연기관 F-시리즈(6.6만 대) 대비 극히 저조하였으며 향후 수요 증가 가능성도 불투명
- Ford는 F-150의 알루미늄 차체 공급업체 Novelis 화재 사건 이후 Lightning 생산을 중단하고 내연기관 모델 생산에만 집중하고 있음

WSJ('25.11.6.) <https://bit.ly/3JwCgDE>

Bloomberg('25.11.7.) <https://bit.ly/49NUIHM>

◆ Subaru, BEV 중심의 기존 전동화 투자 계획 재검토

- Subaru는 '25.11월 「SUBARU Management Policy 2025」에서 전기차 수요 및 통상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'30년까지 1.5조 엔 (약 97억 달러)으로 계획되었던 전동화 투자를 재검토한다고 발표
- 기 집행된 0.3조 엔을 제외한 잔여 투자액 1.2조 엔은 BEV보다는 ICE/HEV 차세대 모델 개발·생산에 초점을 두고 재분배할 계획
- 또한 美 관세 부담을 상쇄하기 위해 '30년까지 연간 2,000억 엔 수준의 비용 절감을 추진하고, 연간 글로벌 완성차 120만 대 이상 판매 및 가치사슬 전반의 수익 개선을 추진할 것임을 언급

Nikkei Asia('25.11.11.) <https://bit.ly/4qRbUN9> Subaru('25.11.10.) <https://bit.ly/4nNOOUW>

◆ Toyota, 향후 5년간 미국에 100억 달러 추가 투자 발표

- Toyota는 美 노스캐롤라이나주 배터리 생산 시설의 개관식에 맞추어 향후 5년간 미국 공장에 최대 100억 달러를 추가 투자할 것임을 발표
- 이는 트럼프 2기 중 공개된 일본 완성차 기업의 對美 투자 가운데 최대 규모이며, Toyota의 대미 누적 투자액은 총 600억 달러로 증가
- 상세 내용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Toyota는 “미래 모빌리티”를 위한 투자임을 언급하였으며, Toyota가 미국 현지 생산·조달을 기반으로 통합 생산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는 예측도 존재

Nikkei Asia('25.11.13.) <https://bit.ly/4qQMdMN> ALJAZEERA('25.11.12.) <https://bit.ly/4pdet11>